

TIERRA DEL FUEGO

세 상 끝 에 천 불 의 땅

띠에라 델푸에고섬

글/장순근

한국 해양연구소 책임 연구원
skchang@sari.kordi.re.kr

사진/SYGMA·장순근

원주민이 밝힌 햇불에서 이름 유래



서양인으로서 처음으로
띠에라 델 푸에고 섬을 발견한
마젤란의 동상.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의 끝은 어디일까? 누구나 한번쯤 호기심을 가질만한 질문이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프리카 끝은 남위 35도, 뉴질랜드 끝은 남위 47도 정도다. 그러나 남아메리카의 끝은 남위 55도 정도로 이곳이야말로 세상의 끝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아메리카 끝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아메리카 본토와 그 남쪽의 섬 사이에 마젤란해협이 있다. 마젤란해협은 1519년~1522년에 세계를 일주한 마젤란(1480?~1521)이 발견한 해협이다. 그는 1520년 10월 21일 그 해협의 동쪽입구로 들어와 11월 28일 태평양으로 나왔다.

마젤란해협 남쪽에 있는 큰 섬, 바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등뼈인 안데스산맥을 따라 내려가 육지가 끝나고 그 남쪽에 있는 커다란 섬이 띠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섬이다. '띠에라 델 푸에고'는 '불의 땅'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이 생긴 유래가 재미있다. 마젤란이 1520년 11월 1일 마젤란해협을 지나갈 때, 원주민이 햇불을 밝힌 것을 보고 '불의 땅'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다른 주장에 따르면 마젤란은 불을 못본채 연기만 보고 '연기의 땅'(띠에라 데 우모 Tierra de Humo)이라고 이름지었으나, 스페인 왕 찰스 1세가 "불이 없이는 연기가 날 리 없다"며 '불의 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섬의 형태는 대략 3각형으로 크기는 4백×3백×4백50km 정도다.

TIERRA DEL FUEGO

나무에서 자라는 인디언 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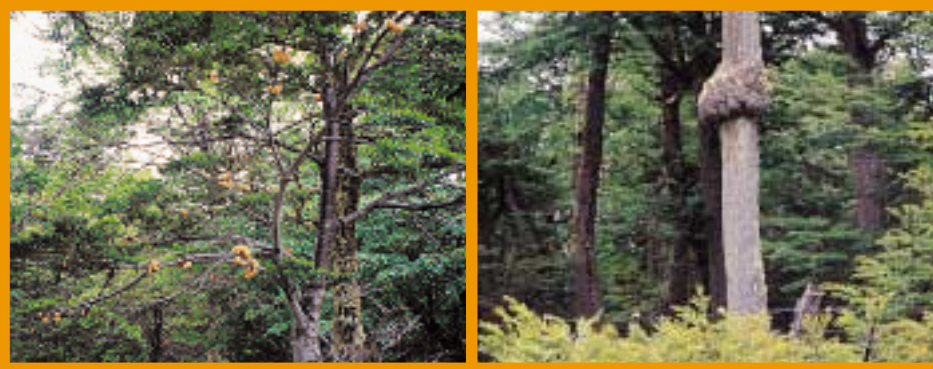


1832년 찰스 다윈 일행이 섬에 도착했을 때 한 화가가 그린 원주민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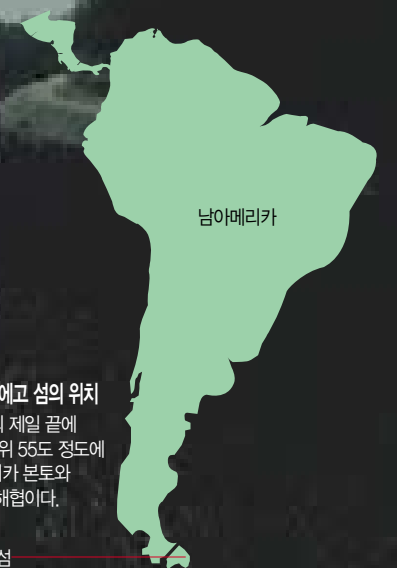
이 섬 원주민의 생활과 자연환경이 문명세계에 제대로 알려진 것은 아마 찰스 다윈(1809-82)의 ‘비글호 항해기’ 덕분일 것이다. 1832년 다윈의 눈에 비친 원주민의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했다. 소매 없는 찢어진 망토와 손바닥만한 짐승가죽으로 가린 몸, 나무로 열기설기 지은 초라한 집, 해산물을 찾아 바닷가를 떠돌아다니는 원시생활, 진 눈깨비가 몸에서 녹아 줄줄 흘러내리는 데도 가릴 것 하나 없이 아이를 안은 젊은 여인, 그 모두가 너무 비참했다. 다윈은 더러운 구리 같은 붉은 색깔의 피부에 머리카락을 묶고, 몸에 빨간 줄과 하얀 줄 또는 새까만 줄을 넓게 그린 도깨비 같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마치 연극에 나오는 악마를 닮았다”고 얘기했다.

숲에는 원주민의 주요 식량인 균류(菌類) 식물이 풍부하다. 너도밤나무 계통의 나무에 가생하는 탁구공 크기 정도의 버섯 종류다. 특별한 맛은 없지만 배가 고플 때는 먹을만하다. 원주민과 초기 개척자들은 이를 그냥 또는 말려서 먹었다. 이 버섯은 1년 내내 자라는데, 식량이 부족한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황색이나 오렌지색의 살구모양을 띤다. 백인들은 이 버섯을 ‘인디언의 빵’이라고 불렀다.

원주민과 개척자들은 나무즙도 마셨다고 한다. 또 딸기 같은 작은 열매도 요긴한 먹거리인데, 특히 줄기에 큰 가시가 돋는 식물 갈라파테가 유명하다. 갈라파테 열매를 먹으면 입 속이 오디를 먹었을 때처럼 자주색으로 변한다. 이 열매를 먹으면 다시 먹고 싶어 섬으로 다시 온다는 전설이 있다.



너도밤나무 가지에 가생하는 동글동글한 오렌지색의 버섯(왼쪽). 원주민의 주요 식량이다. 나무가 버섯의 기생에 대항해 싸운 흔적으로 줄기에 커다란 혹이 생겼다(오른쪽).



(그림) 피에라 델 푸에고 섬의 위치
사람이 사는 세상의 제일 끝에 위치한 섬으로, 남위 55도 정도에 위치한다. 남아메리카 본토와 섬 사이가 마젤란 해협이다.

피에라 델 푸에고 섬

TIERRA DEL FUEGO

진눈깨비 내리는 한여름밤

띠에라 델 푸에고의 숲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험준하다. 첩첩이 쌓인 산과 그 사이의 계곡은 모두 뾰뾰하고 킁킁한 숲으로 덮여 있다. 숲에는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줄기가 온통 뒤엉켜 있고 이름 모를 노르스름한 이끼가 두껍게 끼어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려면 정면돌파보다는 골짜기를 택해야 한다. 하지만 골짜기에서도 폭포와 죽어 쓰러진 나무들이 앞을 막기 일쑤다.

나무의 주종은 단연 너도밤나무다. 너도밤나무의 두가지 종류는 잎의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해 빛나무와 비슷해보이며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잎이 떨어진다. 너도밤나무는 마젤란해협을 개척했던 백인들이 집을 짓고 울타리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썼던 나무로 지금도 목재로 이용된다. 섬의 동쪽해안에 있는 너도밤나무는 상록수로, 지금은 훌륭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활용된다.

드물게 보이는 윈터스 바크는 남쪽의 비글해협과 습기 찬 곳에서만 자라는데, 잎의 가장자리가 둥그스름하다. 나무껍질이 맵고 씨는 후추 모양이며 전체적으로 후추냄새가 심하게 나는 점이 특징이다. 옛날의 선원들은 후추나무계통인 이 나무를 괴혈병 치료제로 썼다.

섬의 날씨는 변화가 커 한여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1768-71년 제임스 쿡 탐험대의 항해에 참가한 식물학자들이 당한 조난이 이런 사례다. 1769년 1월(남반구에서는 여름에 해당) 영국의 유명한 식물학자이자 박물학자인 다니엘 솔란더 박사는 일행과 함께 4백50m의 산에 올라가 식물을 채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해 숲 속에 머물다가 변을 당했다. 한여름이라도 밤에는 찬바람과 비, 심지어 진눈깨비마저 출몰하는 변덕스런 날씨 탓이다. 결국 추위 때문에 두명이 사망했고, 솔란더 박사도 거의 죽을 뻔했다. 지금 뱅크스 산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한국의 구절초를 닮은 이름모를 풀꽃.

◀ 후추냄새가 심하게 나는 윈터스 바크 나무. 옛날에는 괴혈병 치료제로 사용됐다.
◀ 섬의 날씨는 예측불허로 잦았다. 커센바람에 못이겨 몸 전체가 휘어버린 나무의 모습.



F U E G O

TIERRA
DEL

포유류 10여종분

섬의 기후가 나빠서인지 동물이 많지 않다. 땅 위에 사는 포유동물은 박쥐, 생쥐, 두더지, 여우, 와나코를 포함해 불과 10여종류가 분포한다. 와나코는 남아메리카에 분포하는 낙타 계통의 동물이다. 그런데 남아메리카의 맹수 퓨마는 없다. 아마도 과거에 마젤란해협을 건넜어도 겨울을 넘기지 못했거나 먹이에 문제가 있어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윈은 “새도 많지 않으며 곤충은 그런대로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의 계속된 관찰과 수집으로 동물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이 섬에 오래 산 생물학자 나탈리 구돌 여사의 책 ‘피에라 델 푸에고’ (1979년)를 보면, 70여 종의 새가 섬에서 관찰됐다. 이 가운데 46 종은 텃새이며 20여종은 철새다.

한편 다윈은 섬에서 파충류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도마뱀 한종류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등에 두가닥의 노란색 줄이 나있는 이 도마뱀은 섬의 북쪽 평원 모래땅에만 사는 탓에 현지 원주민도 거의 본적이 없다고 한다.

양서류가 섬에 존재한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다. 예컨대 다윈은 “개구리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얘기했다. 1895-97년까지 섬을 탐험한 스웨덴의 오토 노르덴스킬드(1869-1928) 탐험대가 올챙이를 발견했다고 전해지지만 학문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

▲ 낙타 계통의 남아메리카산 동물 와나코. 기후가 나빠서인지 섬에는 동물 종류가 그다지 많지 않다.
▶ 섬 남쪽에 위치한 비글해협의 아름다운 황혼.



TIERRA DEL FUEGO



▲섬 원주민의 동상.
현재 순수한 혈통의 원주민은
모두 사라지고 혼혈족 수십여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찰스 다윈이
섬에 도착했을 때 묘사한
원주민의 주거지(위그웬)를
재현한 모습.

전염병으로 사라진 원주민

다윈은 띠에라 델 푸에고 섬 원주민들의 생활상태에 깊은 충격을 받아 그들이 지상에서 가장 비참한 종족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는 원주민들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윈의 생각과 달랐다. 원주민은 계속 줄어들어 백인이 들어오기 시작한지 1백50년이 지난 지금 순수한 혈통은 한사람도 없고 혼혈족만이 수십여명 남아있으리라 여겨진다.

원래 섬에는 걸터다니며 사냥하는 오나족과 아우쉬족, 그리고 카누로 물고기를 잡는 야호간족과 알라칼루프족의 4부족이 있었다. 인구는 모두 합해서 8천여명 정도였다. 그러나 백인들의 배가 들어오면서 전염된 폐렴, 독감, 백일해, 마마, 홍역, 결핵, 성병 따위의 질병으로 원주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사망했다. 심한 경우 백인이 건네준 옷을 통해 병이 전염됐다. 또 1800년대 말에는 일부 약한 백인들이 마치 사냥하듯이 원주민을 없앴다.

사실 동서고금을 통해 원주민은 거의 예외 없이 외지인의 정복으로 쇠락해 왔다. 아메리카는 물론 오스트레일리아와 태평양 일대 원주민도 사라지고 있다. 현재 원주민이 남아서 제대로 살아가는 곳은 아프리카 대륙뿐이다.

띠에라 델 푸에고 섬의 경우 그나마 현재 찾을 수 있는 원주민의 흔적은 야호간 족의 언어다. 한 목사의 노력으로 이 언어를 영어로 설명한 '아마나 영어사전'이 전해지고 있다. **1**